

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제40회 구강보건상 시상식 성황리에 거행

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지난 6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내외귀빈, 수상자, 양호교사등 관계인사와 다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.

매년 구강보건주간을 기해 열리는 동 시상식을 계기로 일반국민에게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, 인식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, 특히 2세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큰바 있다. 이 자리에서는 "이와 잇몸보호 열가지 수칙"이 발표되어 치과의료인은 물론 참가자에게 큰 관심을 끌었으며 앞으로 구강계몽사업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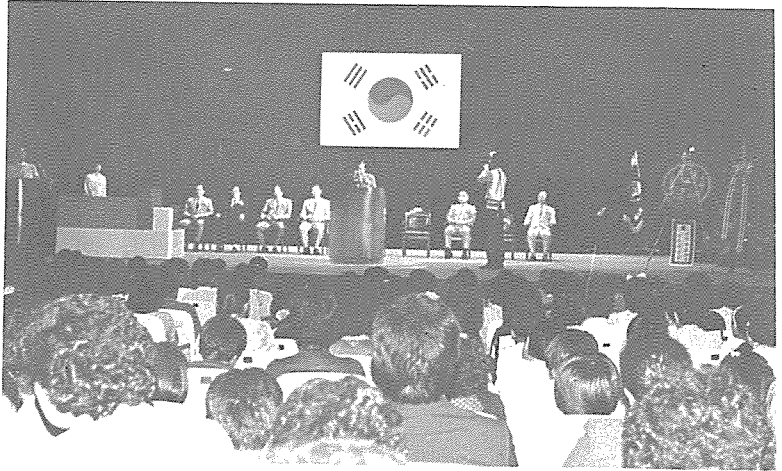
☞ 건치노인

- 금 상 : 채용암할머니 (61세) • 동 상 : 최종기할아버지 (77세)
- 은 상 : 김형기할아버지 (67세) • 장려상 : 이부전할머니 (70세) 외 6명

☞ 건치아동

- 서울특별시 대표 : 성수경 (창서국민학교 5학년)
- 각구대표 : 최동신 (홍파국민학교 5학년) 외 32명.
- 학교대표 : 차재곤 (옥수국민학교 5학년) 외 759명.

구강보건상 시상식을 마친 오후 7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0여 내빈과 200여 회원이 참석, 리셉션이 열렸는데 특히 현직 국회의원 (최영철, 김현욱, 허청일, 박 실, 이 철, 임종기, 김형래, 조상현, 이찬혁의원)이 9명이나 참석함으로써 치과계 현안문제등 제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은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으며, 앞으로 치과의학계 현안 항면문제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인식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.



〈뜻깊은 제40회 구강보건상 시상식장〉



〈건치노인 금상수상한 채용남할머니〉



하기 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리셉션 장면, 이주봉회장이 내빈을 일일히 맞이하고 있다 <건치아동 서울시 대표로 선정된 성수경어린이>